

대구도시개발공사 '도시의 흔적' 담은 전시·공연 선봬

능동적 혁신 주도 조직 문화 확립 대구 미래...시민 공기업 역할 특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도시의 흔적'을 담은 전시·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주제는 파견 예술인들과 함께 '도시'이다. 전시 '도시 흔적'은 오는 30일 까지 대구아트웨이 큐브갤러리에서 열린다.

새달 18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융복합 공연 'Urban Gesture'를 개최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988년 설립된 전국 첫 도시개발공사이다.

공사는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공공주택건설 등을 통해 대구시민 복리증진을 이루며 내실있는 공기업으로 성장, 올해 창사36주년을 맞이했다.

'예술로 대구'사업으로 공사에 파견된 전문 예술인 △김승민(음악) △김재홍(시각예술) △박시연(음악) △이채원(무용) △최은혜(국악)들은 지난 5월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시민문화향유 및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파견예술인 김재홍 작가의 '도시 흔적'전은 23-30일까지 대구아트웨이 큐브갤러리에서 개최된다.

30년이 넘는 대구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5곳과 재개발 지역인 별마마을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과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을 작가가 100일 동안 매일 한장씩 그려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공간 속에 담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는 데 집중, 지역의 따스한 일상과 도시,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 재조명했다.

새달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는 융복합 공연 'Urban Gesture'이 펼쳐진다.

공사 파견예술인인 청년 무용가 이채원과 차년도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김홍중·양완식·서연주가 과거, 현재, 미래가 투영된 시공간 '도시'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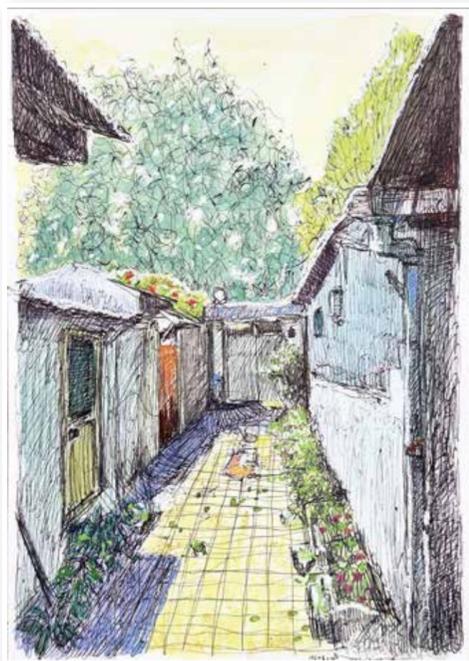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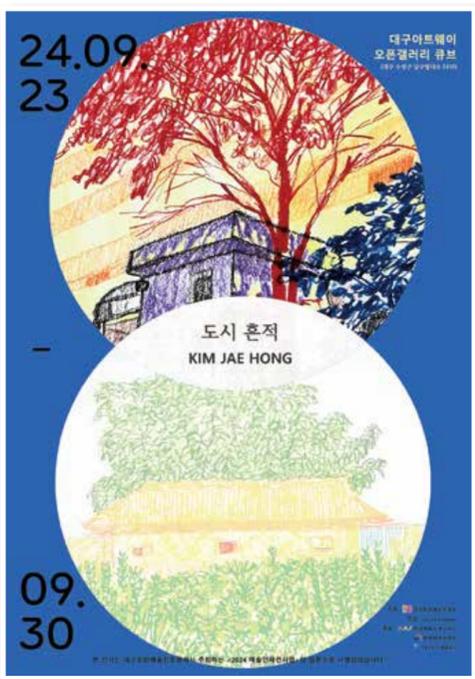
박시연(트리오(김찬욱 베이스, 김효기 드럼), 기타리스트 김승민)의 자유로운 재즈 선율과 경기민요 소리꾼 최은혜의 전통음악이 어우러져, 다원적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닌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으로 파견된 예술인들과 함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예술로 대구' 사업과 관련한 예술협업 활동 일감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artistcenter.or.kr) 누리집과 온라인 플랫폼 SNS(@daegu_as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053-430-5653)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대구 경북 아동인구 해를 거듭날 수록 줄었다

동북지방통계청 경북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 결과 대구 경북 18세 미만 인구 7년새 23, 21% 각각 감소

대구 아동 인구는 2022년 32만5000명으로 7년 전 보다 23%, 경북의 아동 인구는 2022년 35만명으로 7년 전 보다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시 경북도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에서 확인됐다.

대구 아동 인구 감소

부모 평균 연령은 부 43.8세, 모 41.4세며 사교육 참여율은 79.9%,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시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대구의 아동(0~18세 미만)인구는 32만5000명으로 2015년 대비 9만7000명(23%) 감소하고 전체 인구 비중(13.7%)도 3.4%p 줄었다.

아동 가구(18세 미만 아동이 사는 가구)는 20만 6000가구로 2015년보다 22.5% 감소했다.

아동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4%로 2015년보다 8.2% 감소했다.

가구당 아동수는 1.56명으로 2015년 대비 0.01명 감소했다.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명으로 2015년보다 3000명(37.6%) 증가하고 비중(3.2%)도 1.4%p 증가했다.

13~17세는 211.2%, 7~12세는 66.6% 각각 증가했고 0~6세는 11.5% 감소했다. 대구 다문화 아동 가구는 7000가구로 2015년 대비 32.7% 증가했다.

가구당 아동수는 1.49명으로 2015년 대비 0.05명 증가했다.

대구의 2022년 아동 가구 부모 평균 연령은 부 43.8세, 모 41.4세로 2015년보다 부는 1.4세, 모는 1.5세 늘어났다.

다문화가구의 부모 연령은 47.9세, 모의 연령은 36.5세로 2015년 대비 부는 3.5세, 모는 3.3세 증가했다.

부모 평균 연령은 0세가 부 35.8세, 모 33.3세로 2015년 대비 1세, 0.9세 각각 증가했다.

초1, 7세 부모의 평균 연령은 41.7세, 39.3세로 2015년 대비 1.2세, 1.6세 각각 늘었다.

중1, 13세 부모의 평균 연령은 46.6세, 44세로 2015년 대비 1.4세, 1.5세 각각 증가했다.

영유아(0~6세) 아동의 부모 연령은 35~39세(37.5%), 40~44세(32.9%), 30~34세(15.5%)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40세 이상은 13%p 증가했다.

모의 연령은 35~39세(40.4%), 30~34세(26.5%), 40~44세(23.4%) 순으로 2015년 대비 40세 이상은 12.8% 증가했다.

대구 아동의 양육유형은 양부모 양육(89.2%), 한 부모 양육(8.2%), 부모 미양육(2.6%) 순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양육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한 부모 양육 및 부모 미양육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한 부모 양육 전체 가구 중 모 양육(67.9%)은 부 양육(32.1%)보다 2배 많았다.

대구 양부모 양육 가구 중 맞벌이(69.7%)는 2015년 대비 11.8%p 늘었고 전국(72.5%)보다 2.8%p 적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아동 연령 13~17세(72.6%)가 가장 높았다. 0~6세(66.6%)는 전국(70.1%)보다 3.5%p 낮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28.9%)는 2015년 대비 10%p 줄었고 전국(26.3%)보다 2.6%p 많았다.

외벌이가구 비중은 아동연령 0~6세(32%)가 가장 높았고 이는 전국(28.8%)보다 3.2%p 높은 수치다.

양부모양육 가구의 가구당 아동수는 맞벌이와 외벌이가 모두 1.58명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 부 외벌이(1.59명)가 모 외벌이(1.55명)보다 0.04명 많았다.

부모 소득별 가구당 아동수는 부모 소득 1억 원 이상(1.60명)이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 미만(1.55명)이 가장 적었다.

대구의 부모 육아 휴직률(11.3%)은 2015년 대비 3.5%p 늘었지만 전국(11.7%)보다 0.4%p 낮았다. 부의 육아휴직률(4.2%)은 2015년보다 8배 증가했지만, 모(22.1%)의 5분의 1 수준이다.

양부모 양육 육아 휴직률(15.3%)은 한 부모 양육(7.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모의 기업체 규모별 육아 휴직률은 대기업(30.9%), 중견기업(29.6%), 공공행정 등 기타(29.4%)는 높았지만, 중소기업(15%), 소상공인(8.3%)은 낮았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률은 0세 이후 6세까지 감소하다 초1 학령인 7세에서 증가했다.

모의 육아 휴직률은 0~1세에서 65% 이상 높다가 2~6세까지 점차 감소한 후 7세(14.9%)에서 증가했다.

대구의 2022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은 2015년보다 24% 감소했고 아동 인원은 22.4% 줄었다.

아동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4.8%로 전국보다 3.3%p 높다.

전체 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아동수는 1만 7000명으로 전체 아동 중 5.3%의 비중이다. 전국 4.5%보다 0.8%p 높은 수치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대구가 79.9%로 2015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전국보다 1.6%p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7.1%)가 가장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19만 3000원, 79.1% 증가했고 전국보다 2만 7000원 많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학령인구 및 산업인력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이를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의 아동인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해 아동 인구 및 가구 현황과 부모의 일자리, 육아휴직 등 양육환경을 심층 분석했다.

경북 아동인구 감소

부모 평균 연령은 아버지 43.6세, 어머니 40.7세며 사교육 참여율은 72.8%,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북도 아동 인구·가구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아동(0~18세 미만)인구는 34만명으로 2015년 대비 9만 1000명(21.1%) 감소했다.

전체인구 비중(13%)도 7년 전 보다 3.1%p 줄었다.

아동 가구(18세 미만 아동이 사는 가구)는 20만 7000가구로 2015년보다 20.2% 감소했다.

아동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7%로 2015년보다 6.7%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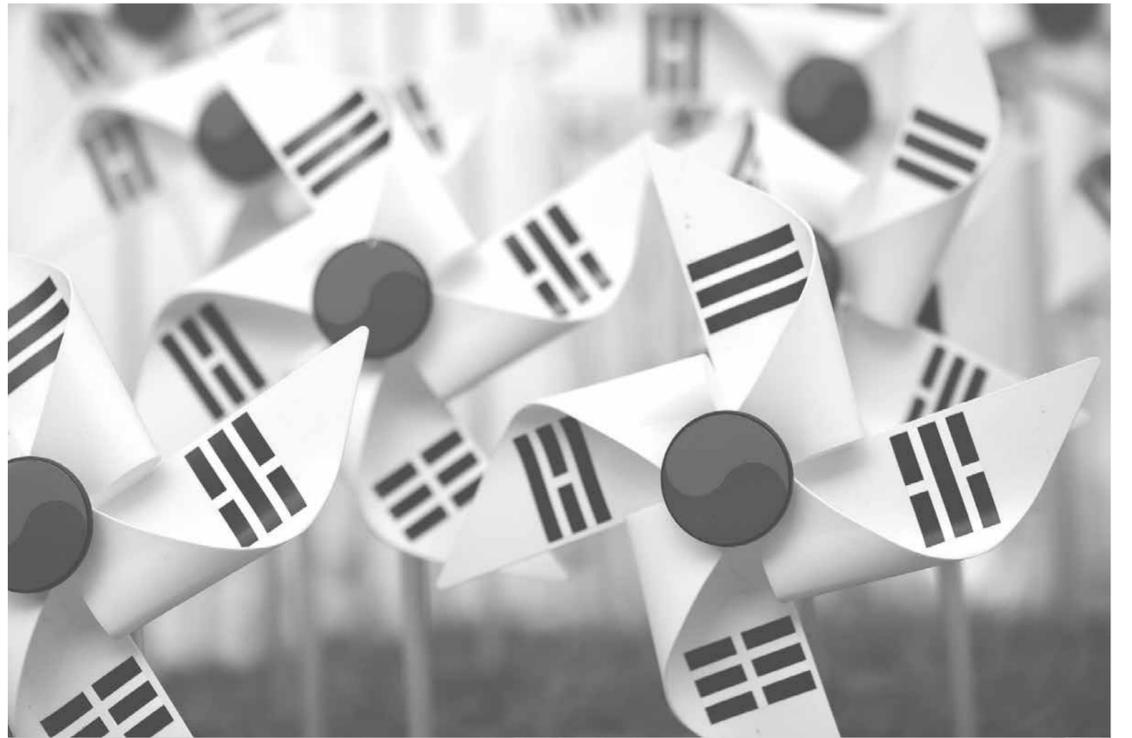
가구당 아동수는 1.59명으로 2015년 대비 0.01명 감소했다.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 8000명으로 2015년보다 4000명(30.9%) 증가하고 비중(5.4%)도 2.2%p 증가했다.

13~17세 283.7%, 7~12세는 56.7% 증가했고 0~6세는 24.1% 감소했다.

경북 다문화 아동 가구는 1만 2000가구로 2015년 대비 28.8% 증가했다.

가구당 아동수는 1.56명으로 2015년 대비



0.01명 늘었다. 경북의 2022년 아동 가구 부모 평균 연령은 아버지 43.6세, 어머니 40.7세로 2015년보다 1.8세 각각 늘어났다.

다문화 가구 아버지의 연령은 49세, 어머니의 연령은 36.3세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아버지는 5.4세, 어머니는 4.4세 증가했다.

부모 평균 연령은 0세가 아버지 35.6세, 어머니 32.9세로 2015년 대비 1.3세, 1.2세 각각 증가했다.

중1, 13세 부모의 평균 연령은 46.4세, 43.4세로 2015년 대비 1.5세, 1.3세 각각 증가했다.

영유아(0~6세) 아동의 부모 연령은 35~39세(36.4%), 40~44세(30%), 30~34세(17.5%)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40세 이상은 12.9%p 증가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38.2%), 30~34세(28.4%), 40~44세(21.1%) 순으로 2015년 대비 40세 이상은 12.2% 증가했다.

양육유형은 양부모 양육(86.1%), 한 부모 양육(9%), 부모 미 양육(5%) 순이었다. 양부모 양육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한 부모 양육과 부모 미양육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한 부모 양육 전체 가구 중 어머니 양육(62.2%)은 아버지 양육(37.8%)보다 2배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대기업(31.8%), 공공행정 등 기

타(26.5%)가 높은 반면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7.1%), 중소기업(13.8%)은 낮았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률은 0세 이후 6세까지 감소하다 초1 학령인 7세에서 증가했다. 모의 육아 휴직률은 2015년 대비 아동 연령 1세(15%p), 0세(14.5%p)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은 2145곳으로 2015년보다 24.5% 감소했고 아동 인원은 27.3% 줄었다.

아동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4.5%로 전국보다 3%p 높다. 전체 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아동수는 1만 9000명으로 전체 아동 중 5.6%를 차지했다.

전국 4.5%보다 1.1%p 높은 수치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국보다 5.5%p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1.4%)가 가장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000원으로 전국보다 11만 6000원 적었다. 2015년 대비 10만 4000원, 5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32만 4000원), 고등학교(28만 6000원), 초등학교(28만 4000원) 순이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학령인구 및 산업인력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이를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경북도의 아동인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활용, 아동 인구·가구 현황과 부모의 일자리, 육아 휴직 등 양육환경을 분석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 양부모 양육 가구 중 맞벌이(67.7%)는 2015년 대비 9.7%p 늘었고 전국(72.5%)보다 4.8%p 적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아동 연령 13~17세(72.2%)가 가장 높았고 0~6세(63%)는 전국(70.1%)보다 7.1%p 낮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30.3%)는 2015년 대비 8.2%p 줄었고 전국(26.3%)보다 4%p 많았다.

외벌이가구 비중은 아동연령 0~6세(35%)가 전국(28.8%)보다 6.2%p 높았다.

양부모 양육 가구의 가구당 아동수는 맞벌이와 외벌이가 모두 1.62명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 부 외벌이(1.63명)가 모 외벌이(1.61명)보다 0.02명 많았다.

부모 소득별 가구당 아동수는 부모 소득 1억 원 이상(1.64명)이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미만(1.58명)이 가장 적었다.

경북도의 부모 육아 휴직률(10.6%)은 2015년 대비 4.2%p 늘었지만 전국(11.7%)보다 1.1%p 낮았다. 아버지의 육아 휴직률(4.2%)은 2015년보다 10배 증가했지만 어머니(21.2%)의 5분의 1 수준이다.

양부모 양육 육아 휴직률(14.5%)은 한 부모 양육(5.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기업체 규모별 보면 아버지의 육아 휴직률은 공공행정 등 기타(7.8%), 대기업(4.6%)이 높았지만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1.6%), 중소기업(2.2%)은 낮았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률은 0세 이후 6세까지 감소하다 초1 학령인 7세에서 증가했다. 모의 육아 휴직률은 2015년 대비 아동 연령 1세(15%p), 0세(14.5%p)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은 2145곳으로 2015년보다 24.5% 감소했고 아동 인원은 27.3% 줄었다.

아동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4.5%로 전국보다 3%p 높다. 전체 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아동수는 1만 9000명으로 전체 아동 중 5.6%를 차지했다.

전국 4.5%보다 1.1%p 높은 수치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국보다 5.5%p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1.4%)가 가장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000원으로 전국보다 11만 6000원 적었다. 2015년 대비 10만 4000원, 5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32만 4000원), 고등학교(28만 6000원), 초등학교(28만 4000원) 순이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학령인구 및 산업인력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이를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경북도의 아동인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활용, 아동 인구·가구 현황과 부모의 일자리, 육아 휴직 등 양육환경을 분석했다.

김성용 기자

다시 늘어난 아기 울음소리... 혼인 32.9%↑

7월 출생아, 전년비 7.9% ↑
 17년 만 최대 증가폭 수준
 4개월 이어진 혼인 증가세...
 7월 기준 역대 최대폭 늘어
 경북도, 저출생정책 종합1위

모처럼 출생아수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적 출생아수는 감소다. 지난 7월 출생아수가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끊겼던 출생아 증가 흐름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혼인 건수는 1만 881건으로 지난해보다 32.9%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혼인 증가폭은 7월 기준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 규모이다. 전 월을 통틀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는 2만 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폭은 7월 기준으로 2007년(12.4%)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월(月) 가운데서는 지난 2012년 10월(9.2%) 이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출생아수는 지난 4·5월 각각 521명(2.8%), 514명(2.7%)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6월(-1.8%) 감소 전환했으나 7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올해도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당분간 출생아 증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와 한국의 0~14세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각각 6.5%p, 4.0%p 감소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p, 24.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각각 10.1%p, 28.5%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올해 10.6%로 1970년(42.5%) 대비 31.9%p 감소했으며, 2072년에는 6.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970년 54.4%에서 2012년(73.4%)을 정점으로 감소, 올해 70.2%,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9.2%로 1970년(8.1%)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높아진다.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2.25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7명 감소한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81명 감소했다. 세계 기대수명은 2022년 72.6세로 1970년 56.3세에 비해 16.4세 증가했다. 한국은 2022년 82.7세로 1970년 62.3세에 비해 20.5세 늘었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2024년 7800만 명에서 2072년에는 5900만 명으로 감소한다. 북한 인구 또한 올해 2600만 명에서 2072년 2300만 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69.7%, 2072년 51.3%로, 한국에 비해 2024년에는 0.5%p 낮으며, 2072년에는 5.5%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6.9%, 2072년 39.3%로, 한국에 비해 2024년에는 2.3%p, 2072년에는 8.4%p 낮아진다.

▣경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 종합 1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점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관으로 9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공모 시상식'에서 종합 1위인 종합대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처사가 수상자로 참석했다. 이번엔 진행된 공모는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우수 공공기관, 기업 등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 7월 공모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총 9개 기관과 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중 경북도는 최고 득점을 받아 전체 1위 종합대상을 받게 됐다. 심사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선도적 대응 전략과 지속 및 확산성 등 여러 부분의 공로가 인정됐다. 체감도 높은 현장 실행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올 1월 저출생과 전장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저출생 전주기론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며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이철우 경주시장이 직접 저출생과 전장 혁신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100대 과제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무조정실-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다니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안과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등 최고 리더의 의지도 보여왔다.

경북도의 선도적인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자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통령도 경북도의 사례를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도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단기 해결책인 100대 과제를 현장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수도권 집중완화, 교육 개혁, 청년-여성 친화 일자리, 고령화 인구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한 분야도 지역 특색에 맞게 기획, 선도해 나간다.

송명주 기자

▣1~7월 누적 출생아 감소

1~7월 누적 출생아는 13만 7913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7월 사망자는 2만 82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명(0.4%) 늘었다. 7월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 규모는 -7630명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자연감소는 5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자연감소 규모는 7월 기준으로 역대 2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1~7월 누적으로는 인구가 6만 8100명 자연감소했다.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1만 881건으로 작년 7월보다 4658(32.9%) 늘어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혼인 건수 증가 폭은 지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모든 월(月) 가운데서도 1996년 1월(50.6%)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혼인 신고일수가 이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작년 7월에 많이 감소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며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줄었던 혼인이 늘면서 혼인 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2만 88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에서 혼인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7월 혼인 건수는 7939건으로 5.9% 증가했다.

▣2072년 韓 출산율 1.08명, 하위 3등...

207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전 세계에서 바티칸(0.98명), 마카오(1.0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제와 수녀 등 출산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다수인 바티칸과 출산율이 비슷해지는 셈이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기준 미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와 홍콩(0.7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인이 기말기에 낳을 것으로 전망되

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72년 1.0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는 마카오(1.04명), 교황청(0.98명)뿐이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현재는 유럽(42.5세)보다 3.5세 높은 수준이나, 2072년에는 63.4세로 유럽(48.0세)보다 15.4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39.2세)나 북아메리카(44.1세)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30계단 떨어져 59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 고향 사라질라"...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36개 시군구의 1년 출생아가 두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6개(15.7%) 지역의 출생아가 100명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울릉군은 한 해 출생아가 26명에 그쳐 가장 적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북과 경남이 각각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은 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봉화·울진군, 경남은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에서 출생아가 100명을 밑돌았다. 전북(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강원(태백시·평창·정선·고성·양양군)이 각각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곡성·구례·진도군)과 충남(부여·서천·청양군)이 각각 3곳이었으며, 부산(중구·대구(군위군)·인천(옹진군) 등 광역시에서도

각각 1개 지역의 출생아가 100명을 밑돌았다.

출생아가 200명 미만인 지역은 61개(26.6%)에 달했다. 이는 4곳 중 1곳꼴이다. 지방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수)가 500을 넘는 지역은 37개(16.1%)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구 군위군의 노령화지수는 1033.8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000을 넘어섰다. 이어 의성군(883.5명), 함천군(795.5명), 청도군(779.2명), 산청군(73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구 단위에서는 부산 중구(733.2명)가 가장 높았다.

노령화지수가 200을 넘어 유소년 한명당 노인이 2명 이상인 지역은 140개 지역으로 61.1%에 달했다.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노령화지수가 100 미만으로 유소년이 더 많은 지역은 18개로 7.8%에 불과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57.9명이었다. 경기 화성시(61.7명), 울산 북구(67.9명), 부산 강서구(7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72년 韓 인구 3600만명...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 명에서 2072년 102억 2000만 명으로 늘지만, 우리나라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2072년까지 10.1%포인트(p)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3배에 가까운 28.5%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미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81억 6000만 명으로 2072년에는 102억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각각 0.86%, 0.07% 수준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세계 0.43%, 한국 -0.82%, 2072년에는 세계 0.13%, 한국 -1.31%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4~2072년 기간 세계

살고유사의
도시교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시 혼인 건수 증가율,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

최근 3년간 연평균 5.8% 증가
2023년 대구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31.43세, 남성 33.71세...
2021대비 남녀 모두 0.4세 증가

대구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다.

2024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가족의 삶에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지난 7월 혼인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3% 가까이 붙어 증가폭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구 혼인 건수 전국 최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이 대구의 여성과 가족의 삶을 8개 영역에서 재조명한 '2024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가족의 삶'에 따르면 대구시의 최근 3년(2021년~2023년)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혼인 건수 연평균은 0.3% 증가했으나 대구는 연평균 5.8%로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19배에 달했다.

2023년 대구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은 31.43세, 남성은 33.71세로 2021년 대비 남녀 모두 0.4세 증가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54세이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턱걸이(0.702) 했다.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자녀수는 감소 추세다.

대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941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출생아 중 여아는 48.8%, 남아는 51.2%로 남아의 비율이 2.4%p 높은 편이나, 출생아 성비 격차는 감소 추세로 남아선호 경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23년 난임인구는 9807명이다. 그중 여성은 64.4%, 남성은 35.6%이다.

최근 3년간 난임인구는 연평균 2.6% 증가했는데, 여성은 연평균 1.5%, 남성은 4.7% 증가해 남성난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구 일·생활균형지수는 2022년 60.6점으로 전국 평균 58.7점 보다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위로 상위권이다. 일·생활균형지수는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3개 영역(일, 제도, 지자체 관심도)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장은 "변화하는 대구 여성·가족의 삶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가적 난제인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도시 대구가 되도록 대구행복진흥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 통계로 보는 대구여성가족의 삶'은 대구행복진흥원이 대구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지원으로 수행한 통계연구이다. 대구 남녀의 혼인과 자녀 출생, 일과 양육, 일·생활 균형 등 초저출생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구의 여성과 가족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인구 및 가구, 가족, 보육 및 교육, 경제 및 사회참여, 건강 및 복지, 안전 및 환경, 문화 등 8개 영역에 걸쳐 전국 및 8대 특·광역시와의 비교를 통해 대구 여성과 가

족의 현 위치를 진단했다.

7월 한달 1만8811쌍 부부 결혼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1만8811쌍의 부부가 결혼했다.

혼인 건수가 1만4153건에 그쳤던 작년 7월에 비해 32.9%나 증가한 수치다. 올 7월 혼인 건수 증가폭은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다.

모든 월을 기준으로 하면, 1996년 1월(50.6%) 이후 28년 반만에 최대다.

전통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이 늘어났다.

주택 특별 공급이나 결혼 장려금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지원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큰 폭으로 줄었던 작년 7월의 기저효과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결혼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외없이 결혼이 늘어난 가운데, 적극적인 결혼 장려책을 내건 대전의 증가율이 5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42.9%), 광주광역시(42.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결혼 증가율도 3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비혼(非婚)주의 확산 등으로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코로나가 거두리기로 미뤄던 결혼이 물리는 '엔데믹(종말병) 결혼' 열풍으로 지난해 들어 1% 증가했다.

하지만 엔데믹 결혼 열풍이 사그러든 올해 들어서도 결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1~3월) 결혼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0.4% 늘어났고, 2분기(4~6) 들어서는 증가폭이 17.1%로 커졌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출생아 수도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엔데믹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부부들이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늘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제주(-7.4%)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출생아 수가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인천이 1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 15.4%, 세종 14.3%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6.2%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함께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들어 출생아 수가 1.2% 늘어난데 이어, 7월에도 출생아 수가 8% 가까이 붙어났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사망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7월 인구는 7639명 자연 감소했다.

7월 사망자는 2만824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4% 증가했다.

조여은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촌 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청령하GO! 우리 함께 청령하GO! 모두 청령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fb** 성주지사

KRCF 시·도 임명직 직제 (한국농어촌공사법 제 3-2021-0081302)

축제의 계절... 경북의 가을 하늘속으로

천혜의 환경서자란 봉화송이
관광객들 '입' 맛 사로 잡는다
맛과 멋 흥 풍성한 경북축제
가을 여행지로 경북이 최고!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루하던 여름날의 뜨거운 기운도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의 맛과 멋, 흥을 소개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첫 번째 축제는 이번 주 27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4'이다.

10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을 주제로 오대양육대주 세계 각국의 탈과 탈춤을 만나는 특별한 장이 마련된다.

27일 개막식에는 '그믐 아래, 탈이 났다'라는 주제로, 식전 행사인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주제공연인 창작무용, 레이지쇼, 태권무와 창작댄스가 펼쳐진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개국 34개 팀이 참가하는 다이나믹 대동놀이까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은 2024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화송이축제

올해 28화제를 맞이하는 '봉화송이축제'가 새달 3~6일까지 4일간 봉화읍 내성천 및 관내 송이산 일대에서 열린다.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체험, 공연, 전시 부대, 연계 행사 등 약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는 천혜의 환경서자란 봉화송이를 알리고 청정 봉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지역주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봉화송이축제 대표 주제 체험인 송이 채취체험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축제 참가자들은 직접 송이를 채취하며 자연의 선물인 송이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송이 채취체험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체험은 하루 두 차례 무료로 진행된다. 회차마다 50명씩 참여할 수 있다.

봉화송이와 한약우에 관련된 퀴즈를 통해 숲속도시 봉화를 알아보는 '도전! 송이 골든벨'은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내성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진행되는 게릴라 이벤트 '송이 한송이 챌린지'는 뽕기, 딱지치기 등 남녀노소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으로 축제장 서편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송이 기요한마당, 목재문화축제 등 7개의 체험행사도 열린다. 송이판매장터와 송이 한약우 식당 등 다양한 먹거리들도 판매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품질 좋은 등급별 송이를 구매할 수 있는 송이 마켓, 안동 봉화축협과 봉화한약우작목회에서 주관하는 한약우 홍보관 및 판매 마켓을 비롯해 봉화군의 우수 농특산품을 직접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다.

농·특산물 먹거리 마켓, 송이와 한약우의 화려한 조합으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송이 한약우 셀프 식당도 운영해 봉화송이와 한약우를 활용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다.

개막 첫날인 3일 내성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에서는 '제3회 오색오미 대형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봉화군 우리음식 연구회 주관으로 봉화송이와 한약우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신선한 나물을 재료로 만든 비빔밥을 무료로 나눠주며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자리를 만든다.

축제 기간 다채로운 공연행사도 이어진다. 축제 첫날인 3일 오후 7시부터는 송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염원을 담은 개막선언과 함께 최우진, 채희, 김소유, 정미애, 진혜성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송이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몽룡전뮤지컬, 봉화사이닝 스타 콘서트 등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코미디 토크쇼 '복가농고 말해보쇼 시즌2'도 열린다. 게그콘서트에 출연했던 유명 개그맨 홍 9인의 화끈하고 열정 넘치는 토크쇼가 펼쳐져 즐거움과 함께 지역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다. 황인욱, 송하예, 경서예지, 한강, 배아현이 출연하며, 금년도 축제의 끝맺음과 차년도 축제에 대한 기대를 담아 가을밤 하늘을 밝히는 불꽃쇼를 끝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숲속도시 봉화' 브랜드에 알맞은 목재 진화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목재문화축제를 함께 열어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봉화송이축제의 대표적인 연계문화행사인 청량문화제에서는 고유의 전통민속놀이를 재연하며 봉화군민과 관광객이 화합할 수 있는 삼계줄다리기, 한시백일장, 보부상 공연, 서예 전시 및 체험, 우리음식만들기, 전통민속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많은 문화단체들이 준비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즐겨볼 수 있다.

베트남 홍보관, 성이성문화제, 2024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등 다양한 전시, 문화, 체육 연계 행사도 열려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올해 송이축제는 지역 사회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화합형 축제로 계획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업 중심형 축제에서 벗어나 체험형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

예방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구현을 목표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고객편의 및 친절, 위생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입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광 진화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는 "이번 송이축제는 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섯 등 품질 좋은 우수 임산물도 많이 준비돼 있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

10월 4일에는 경북도 지정 축제인 '영천보현산별빛축제'와 '의성수퍼푸드마늘축제'가 개막해 3일간 진행된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영천의 별을 담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를 주제로 보현산전문대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초청 가수의 축하공연과 밤하늘 화려하게 수놓는 드론라이프쇼가 장관을 연출한다.

주제관인 목성 탐사를 위한 상상 놀이터와 목성 배경 포토존, 돛양상 우주체험관, 누워서 별보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부모들에게는 어릴 적 고향의 향수에 젖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마늘의 성과 마늘 터널 등 이색구경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의성수퍼푸드마늘축제'는 10월 4일 초청 가수 공연과 불꽃퍼포먼스 등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내 의성마늘 요리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의성마늘댄스파이터와 흥마늘 갈릭버스킹, 지역예술인 한마당 등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영주풍기인삼축제

10월 5일부터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영주풍기인삼축제'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심 봤다'란 주제로 풍기읍 남원천 및 풍기인삼문화박람회공원 일원에서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삼의 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풍기인삼 개삼터 고유제와 인삼대제 등 특별프로그램과 풍기인삼 경매, 인삼빙쥬 만들기, 인삼 인절미 떡매치기 등 체험행사, 우량 인삼 수상작 및 인삼 유동 전시행사가 진행되며, 주 무대에서는 덴둥어미 화전놀이 마당극, 퓨전 국악밴드 공연 등 볼거리까지 풍성하다.

'2024 청도반시축제'는 10월 11일에 개막한다.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주홍빛 청도 식후(경)을 주제로, 전국 유일의 씨없는 감, 청도 반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반시를 활용한 디저트류 판매, 반시 카페와 청도반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시 마트를 운영하고, 반시썰물든 재즈콘서트, 청도반시 명랑운동회, 황금반시를 찾아라, 청도반시 클라이밍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가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제18회 청송사과축제

10월 30일부터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5일간 개최된다.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 페레이드를 시작으로 매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는 꿀잼-사과난타, 만유인력-황금사과를 찾아라 등 체험행사가 가득하다.

올해 청송사과 꽃줄거리 경연대회는 전국 규모로 18개 팀이 참가, 멋진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천에서는 이색적인 '2024 김천김밥축제'가 10월 26일부터 2일간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영주무섬의나무다리축제'(10월5,6일), '영양수비늘이버섯축제', '성주가야산황금들녘매뚜기축제'(10월12,13일) 등 특색있는 가을 축제도 관광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금 경북 곳곳에서는 풍성하고 안전한 가을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청정 산소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경북으로, 풍성한 경북 축제로 가을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행사명 | 장소 | 기간 | 주요내용 |
|-------------|----|------------|------------------------------------------------------------------------------------------------------------|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안동 | 10.6-10.10 |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세계 각국의 탈과 탈춤을 만나는 특별한 장이 마련된다. |
| 봉화송이축제 | 봉화 | 10.3-10.6 |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부대, 연계 행사 등 약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
| 영천보현산별빛축제 | 영천 | 10.4-10.6 | '영천의 별을 담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를 주제로 보현산전문대 일대에서 열린다. |
| 영주풍기인삼축제 | 영주 | 10.5-10.9 | '천년건강 풍기인삼, 풍기에서 심 봤다'란 주제로 풍기읍 남원천 및 풍기인삼문화박람회공원 일원에서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삼의 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
| 제18회 청송사과축제 | 청송 | 10.30-11.3 |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 페레이드를 시작으로 매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는 꿀잼-사과난타, 만유인력-황금사과를 찾아라 등 체험행사가 가득하다. |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송사과축제



의성수퍼푸드마늘축제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6

이형식도의원,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 선임

이형식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국민의힘)이 경북도를 대표,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져감에 따라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돼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책개발,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및 방향성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영천 축사악취해결 집행부가 나서 해결해라”

영천시의회 축사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회의 강조높게 주문

영천시의회 축사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문·이하 축사악취방지 특위)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 소관부서인 환경보호과와 축산과의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았다.

영천시 축사악취 문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축사악취방지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악취 관련 집행부 추진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심도 높은 질의와 함께 정

책 제언들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악취실태조사 용역 사업 대상지역에 다수의 악취 민원이발생하는 북안 도천리 지역이 빠진 부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를 당부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펼칠 때 축사악취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용문 위원장의 집행부 용역보고회 참석으로 당일 회의를 대신 진행한 김종욱 부위원장은 “축사악취해결을 위해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에 좀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수능 D-50’ 경북교육청, 마무리 패키지

경북교육청, 제2회 경북 모의평가 등 다양한 지원

경북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0여일 앞두고 수험생들의 최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는 △D-50 학습전략 안내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 실시 △도내 우수 교사 온라인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을 돕는다.

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중요해졌다. 올해 역대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만5159명, 대구와 경북 지역 5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2254명 늘었다.

교육청은 원서 접수 결과와 6·9월 모의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수능 시험은 의대 증원에 따라 적절한 변별력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의 ‘D-50 학습전략 안내’는 선택과 집중, 실천 훈련, 자기 통제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 맞춤형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영역별 전략

으로 철저한 마무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내 우수 교사 33명이 출제된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는 지난달 29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수험생들에게 실전 감각을 키워주고 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경북 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이 다수 나왔다. 국어 공통 영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지문이 2개 출제됐다.

경북교육청은 다음달 23일 예정된 2차 모의평가도 최종 마무리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경북 모의평가 출제위원들이 촬영한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이 강의는 도내 우수 교사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문제 해설과 함께 수능 대비 핵심 사항을 짚어준다. 경북교육청 ‘맛볼 맛쿨-GBE 수능 방송’ 플랫폼에 올려져 수험생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2차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새달 2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능을 50일 앞두고 수험생들의 노력과 맘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북교육 가족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마무리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경북 모의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계명문화대, 치매예방 특별전시회 개최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 치매위험 노인 직접만든 작품 전시회 ‘눈길’ 열어

계명문화대가 시니어라이프케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 작품들을 전시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시회는 “기억의 빛을 손으로 빛내”를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린다.

계명문화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인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으로 최근 대구 남구, 달서구, 북구 치매안심센터의 경로인지장애자 및 치매 위험자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일한인 점토 테라피를 진행했다.

점토 테라피는 예술치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기법이다.

오감을 자극,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기억력 회복과 함께 새로운 자극으로 창조적 과정에 참여 참여 상징적 언어로 작용하는 자발적인 이미지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일한인 점토 테라피 진행 모습

를 끌어낸다는 장점이 있어 치유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참가 노인들은 점토를 이용해 빚어서 만들기, 점토판 성형, 물대성형 등의 방법으로 생활용품 중심으로 창조적 표현을 드높이고 통찰력을 장려하는 갖가지 구상들을 탐구한 작품으로 생애 애착으로 발전시킨 작품을 직접 제작해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다.

점토 테라피 지도교수인 장성용 교수는 “개인의 인성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서 회복 및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마음치유 프로그램인 점토 테라피를 운영하고 전시회도 개최하게 됐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치매예방은 물론이고 액티브시니어 문화확산에도 도움이 되도록 더욱 확대·운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선성현문화단지 등 현장점검 효율적 방안 심도있게 논의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4일 선성현문화단지 및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을 방문,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 방문은 지난 제4차,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연이어 논의된 선성현문화단지 및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의 향후 운영 방식 결정과 관리 현황 점검을 이해 마련했다. 현재 위탁 기간인 ㈜안동테마파크와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설의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130여의 적자가 발생한 3대 문화권의 위수탁자 변경은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실행되지 못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권기운 위원장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계획의 부재가 우려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위원들이 주무한 시설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경주 보문관광단지, 새로운 관광 명소 탄생

경북 관광 50년 향한 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공간 재 조성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5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이철우 경북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및 많은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관광 명소의 출범을 축하했다.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경북 관광 5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조성됐

다. 주요 시설로는 보문관광단지의 개발 역사와 경북 도내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인 ‘스토리 광장’,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인 ‘역사의 다리’와 ‘역사의 샘’, 보문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인 ‘도약의 링’으로 구성됐다. 준공식은 대한민국 관광반세기 기념 영상 시청, 사업 경과보고, 내빈 인사 말씀, 기부자 감사패 전달, 공원(기부자) 표시석 제막, 공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김남일 공사 사장은 기념사에서 “관광역사공원은 보문관광단지과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장소”라며, “이 공간을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를 대한민국 관광 성지로 조성한 역사적 비전을 되새기며, 미래 대한민국 관광도 경북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 출향 인사들의 소중한 기부가 있었다. 이날 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기부자 표시석 제막을 진행해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나라 대표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인 아이에스동서(주)(회장 권혁운)는 공원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경북도회의자문위원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출향 인사들의 기부 덕분에 공원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경주우체국, 폐의약품 수거사업 앞장

우편서비스활용 폐의약품 회수사업 공적역할 강화

경주우체국은 지난 24일 경주시보건소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우체국에서는 경주시내 주요 아파트(500세대 이상) 및 주민센터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후 신속하게 경주시보건소로 전달하게 된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 등에 유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약물 오염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

경주시보건소 통계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2021년 700kg에서 2023년 2,350kg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협약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용찬 기자

안동시, 천연물 산업 발전 위한 투자 논의

권기창, 헬프산업 안동시 주요 신성장 동력 중 하나

안동시와 ㈜유한건강생활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3일 안동을 찾은 손정수 ㈜유한건강생활 대표이사와 만나 상호 협

력 방안을 모색했다.

면담에는 지난 6월 취임한 손 대표를 비롯한 ㈜유한측 임직원과 권기창 안동시장 및 안동시 관계 국·과장이 참석, 헬프 및 천연물 산업 관련 투자계획과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면담장에서는 경북산업융합포럼 규제자유특구사업을 비롯, 시와 유한건강생활이 협력하고 있는 헬프-천연물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의 향후 진행방향과 추가 투자 및 지원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0년 시작된 헬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안동과 인연을 맺게 된 유한건강생활은, 현재 안동에 천연물 연구소를 두고 초임계유체 추출 및 정제 기술을 이용한 헬프 캔나비디올(CBD) 원료의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7

세종마트 청도점, 저출생 극복 성금 기탁

청도군 화양읍 세종마트 청도점은 지난 24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화양읍에 기탁했다. 화양읍 법곡2리에 위치한 세종마트는 2016

년 개업 이후 매년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현물 및 성금을 기탁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실천했다.

김진원 대표는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기탁한 성금으로 청도군의 저출생 극복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선비들 여유로운 삶·풍류 체험”

(재)영주문화관광재단 행사 야행프로그램 내달 초 운영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은 내달 4·5일, 영주의 전통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행프로그램 '웰컴투 선비촌 달빛 산책길'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 속 풍류를 재현하며, 영주의 전통 음식과 전통주를 만들어 보는 '안빈낙도 음미하기'와 선비촌 내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 '안빈낙도 유람하기'를 융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이틀 동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영주사과를 활용한 '사과 샌드위치 만들기' △선비촌에서 즐기는 작은 힐링 콘서트 '사운드 오브 선비촌' △노페탈 제거와 향균 효과 등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황토가습기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선비촌의 야경을 감상하며 걷는 '달빛 산책길', 영주의 다양한 특산물 간식, 주류 판매 및 홍보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는 24일부터 회차별 선착순 40명씩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yctf05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단 마케팅팀(054-630-9708)으로 하면 된다.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유로운 삶과 풍류를 체험하며, 영주의 전통 문화와 자연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선비촌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예천군보건소, 행복한 임신부 교실 운영

원예프로그램 꽃바구니 체험 영유아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



예천군보건소는 지난 24일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하반기 행복한 임신부 교실'을 개강했다. 행복한 임신부 교실은 24일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과 30일,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임신부 원예프로그램(꽃바구니 만들기) △임신부 스트레칭 △출산 축하 용품 만들기 △영유아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 △목재 문화 체험(도마 만들기) 등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0월 5일은 직장인 예비 부모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배우자 동반 도마 만들기' 등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태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영천,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교육

韓지역정보개발원 강사 초빙 직접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

영천시는 25일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

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 세외수입 기초 이론, 부과·징수·감액, 과태료 부과·징수, 채납처분 등 실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실제 사용 중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며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세외수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하 기자**

경산시장배 미용경기대회 성황리 열려

미용 관계자 800여명 참석 총 36개 종목서 경연 진행

경산에서 제2회 경산시장배 미용경기대회가 24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선수와 미용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 이후 6년 만에 열린 것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합이 재개되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총 36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다. 대회에는 미용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K-뷰티의 열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경합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

려운 전문적인 미용 기구 체험과 피부·두피 진단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마련된 헤어쇼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미자 미용협회 경산시지부장은 "미용인들이 하나 되어 서로의 경험과 영감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K-뷰티의 중심에 선 미용인들이 새로운 아름다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현장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경산 미용인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경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신활력장터 개최

시니어-실버야구 대회 연계 특산물 활용한 먹거리 준비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문경시의 특화자원 윤택함을 통한 스포츠식품 메카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8일에 영순면 야구장 전디광장에서 신활력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활력장터는 문경 야구장에서 21-29일까지 이어지는 전국 시니어-실버야구 생활체육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전국의 생활체육 실

버야구동호인 32개팀과 임원, 실무진,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문경시 농부귀촌 정책 홍보, 지역 먹거리를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발굴해 온 액션그룹, 특화 자원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본외식개발원의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닭 바베큐, 타코야키, 육전, 부추전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길민



욱 단장)은 "이번 신활력장터에 참여하는 액션그룹 구성원들의 먹거리를 통해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군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돌봄지원 운영

국민체력진흥 공단과 연계 사업

울릉군은 지난 23일 울릉군 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돌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력진흥 공단과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1층 체력단련실과 상담실에서 시행되었다. 이날 어르신 56여 명이 참여했고 간단하게 체력 및 혈압 측정과 인바디로 근골격, 지방 측정을 통한 기본데이터를 갖고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근골격계 질환 등 의료상담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정윤환 기자**

이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력진흥 공단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제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돼 경각심을 갖게 돼 도움이 됐다"며 "매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 생활은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울릉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 청년 리더 교육 진행

통일문제·공감대 확산 군부대 유치 퍼포먼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는 24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청년 리더 교육'을 개최했다. '북한의 통일 노선 전환과 8.15통일독트린의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 리더 교육은 민주평통 청년위원이 중심이 돼 지역 청년 세대들에게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통일문제 이해로 통일공감대 확

산을 위해 마련됐고, 상주청년회의소, 새상주로타리클럽, 상주미래발전청년연합회 등 사회봉사단체 회원과 2040청년세대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김홍정 청년분과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재노 정치학 박사가 북한의 현실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의 역할 등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윤경환 협의회장은 "북한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우리나라의 반국가세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통일을 거부하고 북주장



에 동조하는 반헌법적 망언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어려운 남북관계이지만 한반도 통일과 미래에 대해 청년 세대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군, 벼 생육 후기 벼멸구 적기 방제 당부

이상고온으로 피해 급증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벼멸구 피해 최소화

와 확산 방지를 위해 벼 생육 후기 벼멸구의 철저한 방제를 농가에 당부했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서해안·남해안 지역(경남, 충남, 전북, 전남)에서 벼멸구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벼멸구는 6-7월 중경에서 유입되어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다가 벼 출수 후에는 벼의 중간부분에서 즙액을 흡수해 벼를 고사시키는 해충이다. 올해는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의 세대교체 주기가 단축되면서 다량으로 번식했으며, 9월 중-하순까지 고온이 지속되거나 태풍이 유입되는 경우 바람을 타고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송명주 기자**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